


# 다양성안의 하나됨, 빈곤속의 풍요

|  미국 알래스카 |

주노는 알래스카 남동부에 있는 주(State)의 행정 수도이지만, 인구수 약 3만여의 작은 도시입니다. 교구 전체 신자수가 약 1만여 명으로 서울에 있는 큰 본당 두 개 합친 정도밖에 안 되지만, 교구 관할 면적은 137,000 평방 km로 남한 면적보다 큼니다. 이 광대한 지역에 본당은 단 9개, 일하고 있는 사제의 수는 주교님과 은퇴 신부님 각 한 분을 제외하고 저를 포함해 8명에 지나지 않습니다. 지리적 특성상 육로로의 이동이 극히 제한된 지역이기에, 멀리 흩어져 사는 신자분들이 성당에 오기 힘들다는 것도 큰 어려움 중 하나입니다. 그 때문인지 이곳 주노 교구는 신자수, 성직자, 수도자 등 수의 측면에서 미국에서 가장 작은 가톨릭 교구일 뿐만 아니라, 재정적으로도 자립하지 못해 미국 내 다른 교구들로부터 재정적 원조까지 받고 있는, 미국 내의 선교지로 간주되고 있습니다.

북위 58도, 매우 긴 겨울과 특히 겨울의 매우 긴 밤 시간(하루에 18시간 정도)으로 사람들이 힘들어하기도 하지만, 동시에 여기 주민들은 이곳의 자연을 매우 좋아합니다. 여름 기온은 20~25도 정도로 극심한 무더위에 시달리는 한국과 달리 매우 쾌적한 편이며, 수많은 섬과 바다, 그리고 뒤편의 산과 빙하로 이루어진 자연경관은 시선이 가는 곳마다 감탄을 자아내기에 충분합니다. 제가 일하는 본당에서 5분만 가면 여름 꽃들과 한여름에도 녹지 않는 빙하를 동시에 만날 수 있습니다. 같은 시간, 같은 공간에 다양한 계절들이 공존하는 것을 느끼는 진귀한 체험이지요. 때문인지 여름철에는 전 세계에서 이곳을 찾는 관광객들로 도시 전체의 인구가 느껴지는 것이 실감될 정도입니다.

이곳에서 다양함을 느낄 수 있는 것은 자연만이 아닙니

다. 이곳의 인구 구성도 매우 다양한데요, 1867년 미국이 러시아로부터 알래스카 전체를 720만 달러에 구입하기 전까지는 이곳이 러시아 영토였기에 러시아 혈통의 사람들도 남아 있고, 그 이전부터 이곳에 거주하던 Tlingit(발음은 '틀링킷'에 가깝게 읽힙니다)을 비롯한 원주민들, 대게와 연어를 비롯한 수산산업이 발전하면서 어부가 되고자 이주한 남태평양의 사모아계 사람들(몸집이 매우 큼), 그리고 같은 기간, 연어 등의 캔 공장의 인력 등으로 이주한 수많은 필리핀계 사람들, 관광에 관련된 다양한 산업들을 통해 진출한 남미의 히스패닉 사람들도 모여 있습니다. 그 중 특히 사모아계와 필리핀계, 남미 출신 분들은 성당에 매우 열심히 나오는 교우들이죠. 얼마 전 제가 집전했던 세례식에서는 그 다양한 인종 출신의 가족들을 한 자리에서 만날 수 있었습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한 분인 주님의 이름으로 모여 있는 것을 체험할 수 있는 공동체, 바로 이곳, 주노, 알래스카의 모습입니다.

한국을 떠나 이곳 주노 교구에 들어온 지 이제 겨우 넉 달이 조금 넘었습니다. 아직 이곳에 온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제가 어디를 가든, 이곳 분들이 무척 반겨 주시는 것을 느낍니다. 그만큼 이분들의 신앙심에 비해 사제들의 수가 너무나 부족했기 때문이었겠죠. 임금을 등에 업은 임금을 향한 환호를 자신의 것으로 느껴 우쭐해졌던 어리석은 당나귀가 아닌, 주님을 업고 다니는 주님의 충실한 종으로서 다양함 안에 하나의 신앙을 이루는 이곳 주노 교구에서 주님의 도구로 잘 쓰이기를 오늘도 기도하며, 이 땅에 더 많은 주님의 종, 그리고 양 냄새 나는 목자들이 파견되기를 기도합니다.

민경일 아우구스티노 신부 | 미국 알래스카 선교